

# 김현탁 국민연금 제도 개혁 법안, 40% 수익률 실시예

## Kim Hyun-Tak Bill for Reform of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40% Return Rate per Year

김현탁 (Kim Hyun-Tak)<sup>a,b</sup>

<sup>a</sup>Department of physics, College of William & Mary, Williamsburg, VA 23185, USA

<sup>a</sup> 미국 윌리엄마리 대학 물리학과 교수, 윌리엄스버그 VA23185

<sup>b</sup>Kim Hyun-Tak Physics and Applications Lab<sup>1</sup>, Williamsburg, VA 23185, USA

<sup>b</sup> 김현탁 물리응용연구소<sup>2</sup>

Corresponding e-mail: htkim580711@gmail.com

Upload date: October 19, 2024

### [Abstract]

The government bill announced on September 4, 2024, is problematic because it violates both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live a humane life) and Article 102, Paragraph 2 of the National Pension Ac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unds), which states that “in order to ensure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returns of the fund must be maximized.” If these violations are resolved, the people will accept the government bill. To address the violation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n “automatic pension benefit increase system” will be introduced. To address the violation of Article 102, Paragraph 2 of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term “maximum” will be replaced with a provision stating that “100% of the fund, managed by external fund managers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for the highest returns, shall be invested in and managed with stocks that grow steadily over the long term, with an average return of 23% per year or more (resulting in a 10-year compound interest of 693% or more).” This approach will maximize the compound interest effect, with an expected average annual return of 30% over 10 years. Supporting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for such measures. Additionally, actual data for periods of less than 10 years can be compared to the 10-year average return of 27% for SMH (a U.S. semiconductor ETF), which has demonstrated returns of about 40% per year.

### [요약]

2024년 9월 4일 발표된 정부 법안은 헌법 34 조(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국민연금법 102 조 ②항(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명시된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기금의 수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두 위반해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해결되면 국민이 정부법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헌법 34 조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연금 급여 자동 증가 장치"를 입법한다. 국민연금법 102 조 ②항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조항속에 있는 "최대"를 "최대 수익률 상위 경쟁입찰로 선발된 외부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의 100%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률 10년 평균 23%/년 이상 (10년 복리 693% 이상)"로 바꾸는 법률을 개정한다. 이 경우 복리효과 최대가 될 수 있고 10년 평균 30%/년 이상이 기대된다. 추가로, 약 40%/년 수익률은 10년이 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SMH(미국 반도체 etf)의 10년 평균 수익률 27%와 비교 추산하여 얻은 것으로 목표달성의 가능성의 실시예를 제공한다.

공개 자료(링크): [viXra: 2407.0108](#)(영어), [viXra: 2409.0010v2](#), [viXra: 2410.0010](#), viXra: 2410. yyyy

<sup>1</sup> > 김현탁 소개, ETRI(국가 최대 국립 연구기관), 최우수연구원, 발명대왕, 자랑스러운국민인, 2015년 모든 신문 1면, 모든 방송 9시 뉴스에 나온 스타과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전략가, 20년 국가과제 책임자를 하였음. 저의 자료는 ETRI 홍보실에 있음, 꿈은 인류발전, 국위선양, 국부창출임.

> ETRI에서 정년을 하고 연구를 더하기 위하여 미국 윌리엄마리 대학으로 왔으며, 24년 11월 15일로 임기를 완료하고 ETRI 시절 개발한 기술을 국제화하고 개인 연구를 더욱더 충실히 하기 위하여 "김현탁 Lab"을 만들고 보다 발전적인 일을 하려고 준비중이며, 아직 열심히 연구하고 있음. 또한, 나이가 드니까 기회들이 자꾸 사라져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자신과 싸우고 있음.

> 연금문제는 정년 후 연금을 받으니까 기대보다 훨씬 작다고 느껴서 약 3년에 걸쳐서 아주 소액으로 검증 실험을 하면서 연금연구를 하였음. 마침 국가가 연금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니 저의 연구를 정리하여 "개혁법안"을 만들어서 연금개혁에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함. 참고로 저는 아직 이익 실현을 한 적이 없는 주식 투자가가 아님을 밝혀 둬. 여기에 나오는 HyTak etf들은 스스로 만든 것임.

<sup>2</sup> 김현탁 물리응용연구소, <https://sites.google.com/view/hyun-tak-kim/>,

# 1. 김현탁 국민연금 개혁 법안

정부안: 24.09.04, 정부안 확정 발표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인간다운 생활” 헌법 제 34 조와 “수익 최대” 국민연금법 102 조 ②항을 위반함.

김현탁 법안은 정부안에서 법을 위반하는 부분을 교정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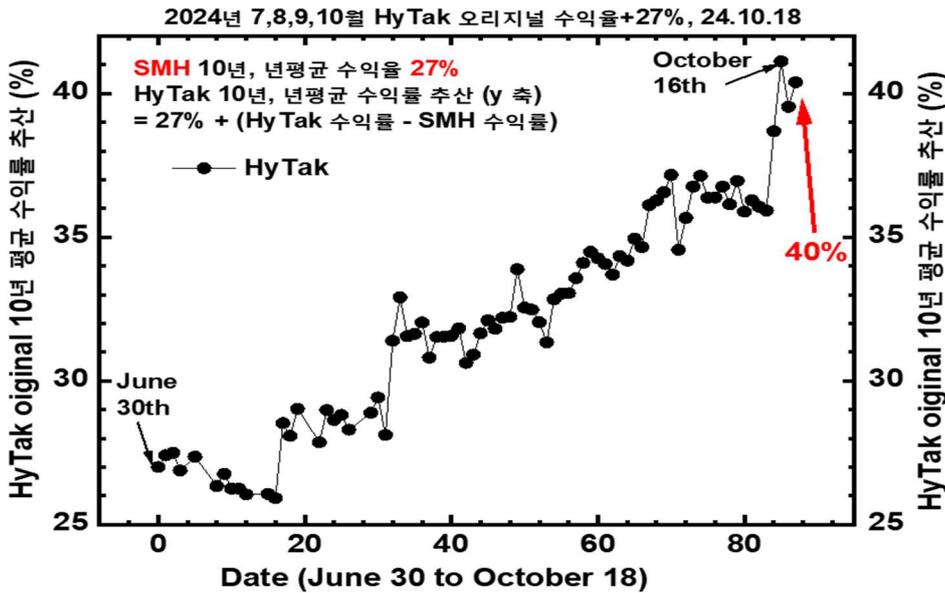
정부안 중점 부분

정부안	김현탁 교정 안
세대간 차별화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둠.	“인간다운 생활”의 헌법정신에 중점을 둠
1. 보험료율 9% -> 13% 인상 ※보험료율 인상속도는 세대별로 달리함. 단계적으로 인상 50대(66~75년생) 1% 인상 40대(76~85년생) 0.5% 인상 30대(86~95년생) 0.33% 인상 20대(96~07년생) 0.2% 인상 2040년 모든세대 13%가 됨	타당함, 보험원금(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개혁안을 근거로 세대에 상관없이 빨리 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소득 대체율 40% -> 42% 인상	이 소득대체율을 받아들이 되, 정부가 정하는 인간다운생활비용(인생비, 300만원 이상, 사람마다 매년 다를 수 있음)까지 연금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자동증가장치”를 추가해야 함. 방법: “정부안” + “자동증가장치”, <b>연금급여=[소득대체율상수x기본연금액x지급율]+자동증가장치.</b> ※자동증가장치는 개정되는 국민연금 102조 ②항에 따라 얻어지는 고수익을 이용하여 (1) 연금기금을 소진없이 증가시키고, (2) 인구감소 및 수명연장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감소를 보장하고, (3) 헌법정신 실현을 위해 인생비를 증가시키며, (4) 연금부채를 갚는 역할을 함.
3. 기금소진연도 2056 -> 2072 (16년 늘어남)	기금소진은 국민연금법 102조 ②항 위반. “자동증가장치”의 도입으로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계속 증가됨.
4. 기금수익률 4.5%/년 (2023년 5차 재정추계 설정) -> 5.5%/년 이상, 1% 이상 올림	국민연금법 102조 ②항(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반함. > 그 법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b>장기적인 안정을 유지</b> 하기 위하여 <b>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b> 라는 부분에서, <b>“최대 수익률 상위 경쟁입찰로 선발된 외부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의 100%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률 10년 평균 23%/년 이상 (10년 복리 693% 이상)”</b> 로 교체하는 법률을 개정한다. ※수익률은 원금을 포함하지 않음. 복리 수익금=원금(1+수익률) <sup>기간</sup> . > “최대”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b>방법</b> 을 포함시켜야 함. 위 내용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넣어야 함. > “최대 수익률 상위 경쟁입찰”은 참여하고자 하는 펀드 매니저가 달성하고자 하는 수익율과 그 검증 자료를 제출하면 검증 후 최상위 수익률 제출자부터 선정함. 계약기간은 10년(120개월)으로 하되, 40개월씩 평가를 하여 매 평가시 실적이 나쁜 펀드 매니저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펀드 매니저로 대체함. 계약기간동안 그들의 신분과 급여를 보장하며, 필요시 국외출장도 보내줌. ※이것은 수익률 극대화 방법이며, <b>10년 평균 30%/년 이상이 기대됨.</b> ※ 단, 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그 기금의 일부라도 “직접운용”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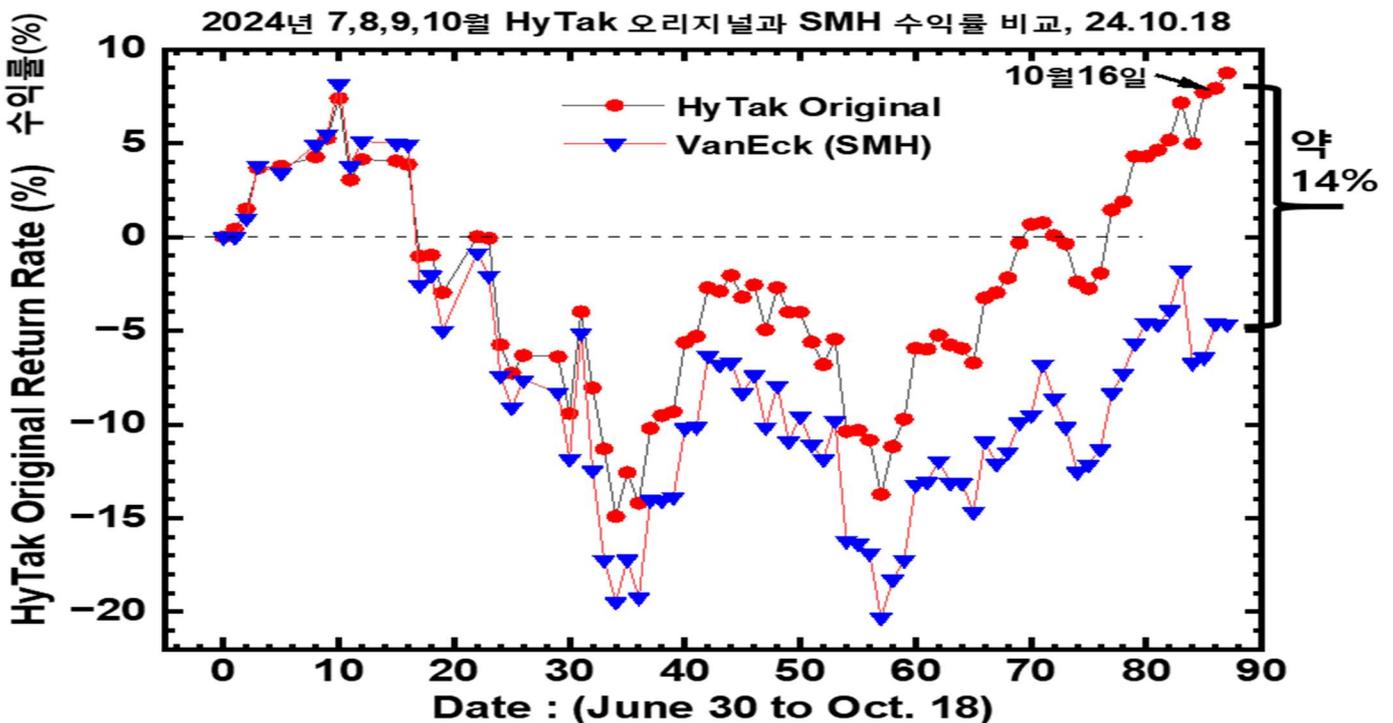
	<p>않으며, 펀드 매니저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되며, 그들을 적극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p> <p>※ 연금은 세금이 아닌 개인 돈이므로 법률로 명시되는 위 목표 수익률을 낼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헌법에 선선했음)도 함부로 연금 기금을 함부로 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p> <p>&gt; "펀드 매니저":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격이 있음.</p> <p>※단, 자산운용회사는 제외함. 왜냐하면, 자산운용사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겨우 5%에 달하고,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반 개인 투자는 꺾임이나 연금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음. 예, 필자는 ETRI 출신으로 국내 대기업 자산운용사가 과기연금을 운용하며, 4~5% 수익률을 받고 있음.</p> <p>&gt; "꾸준히 성장하는" 연금투자는 일반 개인 투자와 다르게 10년 이상 매월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이며 외부 경제 상황이 급변해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복리효과를 최대로 얻기 위함. 단기 변동하는 급등주는 꾸준히 성장하지 못하고 장기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뜻. 예, 비트코인 투자는 아직은 투기(도박)로 간주되고 있음.</p> <p>&gt; "주식에 100% 투자"는 채권 주식 결합형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며, 복리효과가 없는 채권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p> <p>&gt; "장기적인"은 투자된 종목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는 10년 이상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체 혹은 조정한다는 뜻.</p> <p>&gt; "수익률 10년 평균 23%/년 이상 (10년 복리 693% 이상)"은 기대 수익률의 최소이며, 유명한 미국 나스닥 기술주 QQQ 이티에프(etf)보다 높고 미국반도체 SMH etf [10년 평균 27%/년 (그림 1의 오른 쪽), 10년 복리 1000%] 보다 낮음 (아래 그림 3). SMH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나, 수익률 경쟁입찰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움. 따라서 이 목표달성과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적어도 10년 평균 30%/년을 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이것이 작성자가 수익률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전략임. "최대"는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기대값임. 헌법 127조 1항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도전정신임. 따라서 위 목표 "최대"는 헌법정신에 부합함. 오늘의 경제성장은 도전에 의해서 이룬 것임.</p>
<p>특이사항: 자동조정장치 검토예정.</p> <p>이것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임.</p> <p>[복지부 전망]</p> <p>(1)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2088년으로 늘어남.</p> <p>(2) 전체 기금이 적자를 보기 5년 전인 2049년 발동하면 2079년 기금이 소진됨.</p> <p>(3) 적자 시작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2077년 기금이 소진됨.</p>	<p><b>헌법정신을 약화시킴.</b></p> <p>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연금 수급액 (2023년 1인 월평균 연금급여가 약 59만원)이 더 줄어들어서 인생비의 목표액 도달을 어렵게 만들 이것은 자동삭감장치라고 함.</p> <p>그래서 국민연금법 102조 ②항을 개정하여 얻어지는 <u>고수익을 이용하여 "자동증가장치"를 새롭게 도입함 (위에서 설명했음).</u></p> <p>추가로, <u>연금부채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금법의 개정은 시급함</u></p> <p>※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2023년 1천 825조원에서 2050년 6천 105조원, 2090년에는 4경 4조 38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영준 교수(한양대) 추산했음 (한경,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올해 1천 825조, GDP의 80%...2050년엔 109%").</p>

2. 위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위한 실시 예, 10년 평균 수익률 약 40%/년 데이터

위에서 제시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의 “법적목표, 복리, 10년 평균 23% 이상”의 달성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은 HyTak (작성자의 이름 Hyun Tak에서 un을 뺀 작성자의 이름) 오리지널 etf의 10년 평균 수익률을 알려진 SMH와 비교하여 추산한 것을 보여준다. 41%까지 도달하였다. 작성자가 직접 만든 HyTak 오리지널 etf는 37개의 개별 주식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1월1일부터 시작되었고, 2024년 6월 30일부터 기록을 시작하였다. <그림 2>는 <그림 1>의 세부 데이터이며, HYTAK 오리지널이 미국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반도체 etf, 티커명 “SMH” (한국에서 “Kodex 미국반도체 MV”) 보다 24년 10월 16일에 약 14%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 SMH의 10년 수익률 27%는 <그림 1>의 오른쪽에서 자세히 보여준다. <그림 3>은 SMH, S&P500의 VOO와 나스닥 100의 QQQ와의 비교도 함께 보여준다. 이것으로 법적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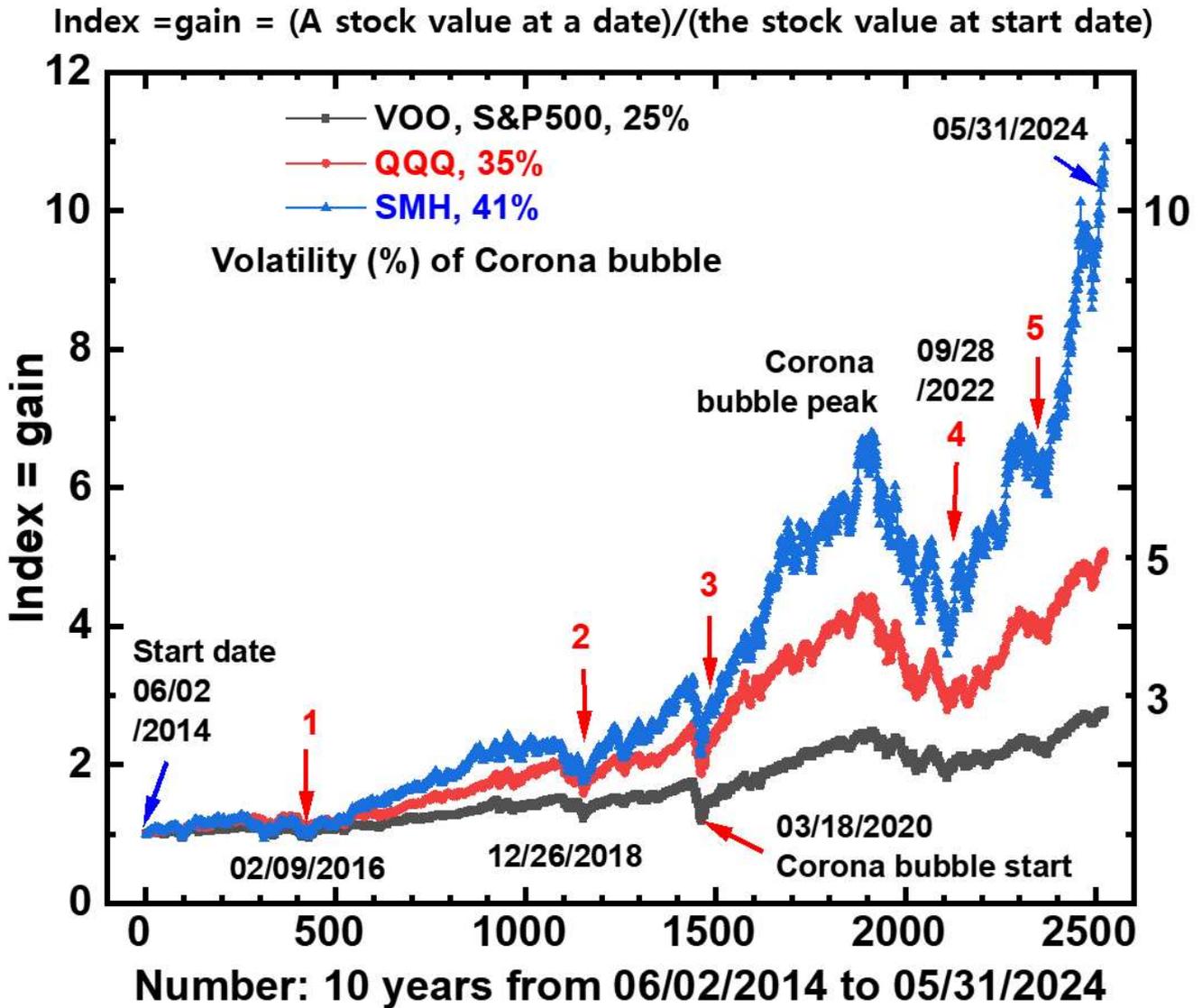


<그림 1> HyTak 오리지널(10년 안되었음) 10년 평균 수익률을 SMH(미국 반도체 etf) 10년 평균 수익률과 비교를 통해 추산하였음. 24년 10월 16일에 HyTak 오리지널이 41%의 수익률을 보여줌. SMH의 10년 평균 수익률 27%는 우측 그림에서 보여줌.



<그림 2> HyTak 오리지널이 SMH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24년 10월 16일에 약 14% 더 높음.

<그림 3>은 유명한 etf 의. 500 개 회사를 포함하는 VOO (S&P 500 지수를 따름) 와 100 개 기업을 포함하는 QQQ(Nasdaq 100)와 25 개 회사를 포함하는 SMH(VanEck Semiconductor, 한국에서는 'Kodex 미국반도체 MV' etf 에 해당됨)의 10 년 복리 수익률을 보여준다. VOO 는 약 270%, QQQ 는 약 500%, SMH 는 약 1000% 달하는 이득을 보여준다. SMH 연간 수익률은 27%이다 (그림 1 오른쪽). 그 높은 수익은 눈덩이 효과 (Snowballeffect; 복리효과)에 의해 발생한다. 수익률은 이득과 다르며, 여기서 수익률 = 이득 - 1 이며, 이득은 (특정일의 주가)/(시작일 주가)로 정의된다. 그 etf 들은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5 년 동안 2~3 차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경기 사이클을 겪는다.



<그림 3> 유명한 ETF 의 지수로서의 이득: VOO(S&P 500), QQQ 및 SMH 10 년 데이터. 이득은 (수익률) + 1 로 정의된다. 지수의 이득 = (어떤 특정일 주가)/(2014 년 6 월 2 일 시작일의 주가)로 정의된다. 데이터는 Yahoo Finance 의 과거 데이터에서 얻은 것이다.<sup>1-3</sup> 코로나 버블 주가 변동성은 코로나 버블 피크 지점과 빨간색 화살표 4 번의 낮은 지점의 차이로 측정된다. 이는 고수익 etf 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SMH, QQQ, VOO 는 10 년 동안 각각 10 배, 5 배, 약 2.8 배의 수익을 얻었다.

<참고자료>

<sup>1</sup> Historical data of VOO in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quote/VOO/>.  
<sup>2</sup> Historical data of QQQ in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quote/QQQ/>.  
<sup>3</sup> Historical data of SMH in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quote/SMH/>.  
 -END-